

# <누가 전쟁을 원하는가?>,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최종)

14

"그들이 이긴다면, 상황은 더 안 좋게 될 것이다"

이윤에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 모든 종족과 인종의 자본가들을 피로 맺은 형제들처럼 보이게 만든다. 게다가, 평화 시기 때 노동자들은 이를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노동자들 이익과 노동자들의 목적의 “적”들이 이웃나라의 노동자들이 아니라 각 국경 안의 자본가 사장들인 것도 알았다. 근데, 인민들이 차르나 카이저의 깃발 아래 소집 될 때, 삶이 가르쳐준 것들을 왜 노동자들은 잊어야 하는가? 왜 노동자는 동포라고 하는 기업가와 상인과 공장주의 금전적 이익이, 그와 박탈당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프롤레타리아들의 공통적인 목적보다 더 자신에게 가깝다는 말을 믿어야 하는가?

## "전쟁의 이유"

전쟁이 아무리 끔찍하고 추잡해서 아무도 변호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전쟁이 시작된 이상, 현실이 된 이상 싸우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우리는 일단 다른 질문의 답을 먼저 찾아야 한다, 어쩌서 전쟁이 시작되었는가? 뒤에 숨은 이유가 무엇인가? 전쟁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 영토를 두고 싸우기도 하고, 고국의 자유를 위해서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전쟁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 전쟁은 자본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자본주의는 공장들과 토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에 부여되고, 나머지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밥먹고 살기 위해 사장들인 자본가, 공장주, 지주들에게 파는 두 손 뿐인 경제 체제에 붙은 이름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각 국가들에서 성장하면, 자본은 국가안에서 답답해 한다. 이득과 이익을 늘리기 위해, 자본은 축적된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공장주와 기업가들은 상품 생산을 위한 철, 광석, 목화 같은 “원자재”를 입수 할 수 있는 시장 확대, 새로운 지역, 나라 그리고 식민지를 요구한다.

지금 서로 전쟁 중인, 주요 자본주의 강대국들은 모두 세계 시장에서 식민지라는 필요성을 느꼈다. 각 강대국들은 외교적 기만을 하든, 약하고 의존적인 나라의 정부와 자본가들에 뇌물을 주든, 무력을 쓰든, 어떻게든 식민지와 다른 나라들의 경제를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게 하기 위해 궁리한다. 식민지와 세계시장에 대한 지배가 근대적인 강대국들 사이에 불타고 있는 분쟁의 원인이다. 각 강대국들은 시장을 독점하기를 바라고, 자기가 모든 이윤을 얻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이 강대국들은 분쟁을 서로를 속이고, 선수치는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하려 한다. 평화의 시기에도, 외교관들이 벌이는 협상은 멈췄던 적이 없다. 하지만 인민들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알려지지 않았다.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분쟁은 인민들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것이고, 자본주의적인 사유 재산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국가들을 식민주의적이거나 “제국주의적”인 정책으로 향하게 한다. 전쟁이 발생할지, 않을지를 정하는 것은 자본가들이다. 그리고 인민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하나만 알면 된다, 소집되면 가서 죽는것이다!...

만약 외교관들이 서로 선수치기에 성공하지 못하면, 그들은 바로 전쟁 위협을 한다. 외교관들 등뒤에는 대포가 있기에, 국가들 사이의 안정적인 평화란 없으며, 오직 국가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기간인, “무장한 평화”만이 있다... 노동자든 인민이든 외교관들이 하는 협상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런 협상들은 “비밀리에” 진행된다. 그러나, 이 “팽창 정책”을 추진하는 자본가들, 은행가들, 지주들은 외교관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항상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이 외교관들이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을 지키는데 실패했다고 여기거나, 협상이 다른 강대국의 자본가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간다고 여기면, 그들은 경보음을 울린다 “도와줘!, 조국이 위협에 처했다!, 형제 노동자아 모든 수치와 과거를 잊고, 우리의 공통된 조국을 지키자!... 나가서 조국의 영광을 위해 죽어라”. 정부는 자본가들의 우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다. 정부는 들을 수밖에 없다, 정부 자체가 자본가들과 지주들로 이루어 졌기에, 정부는 그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의 이윤과 도둑질을 보호한다... 자본가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고, 외교관들의 협상은 “격렬”해진다...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인민들은 “우리는 공장주들과 기업가들, 은행가들과 상인들이 많은 이윤을 원하기에, 우리의 자본가들에게 식민지나 다른 나라들을 약탈할 권리를 보장 하기 위해 싸운다”라는 진실을 듣지 못한다. 이거 참 곤란한 일이다, 인민들은 그만 이유를 위해 나가서 죽지 않을 것이기에 말이다. 그러기에 우리(자본가)는 “조국이 위협에 처했다!” 라고 울거나, “이웃들을 차르정이나 카이저정에서 해방시키자!”라는 동화를 지어내야 한다... 자본가들, 지주들 그리고 은행가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 앉아, 3배로 불어난 무기 판매금을 주머니에 넣고는, 전쟁 결과를 기다린다. 인민들이 싸우며 죽는 동안, 인민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하는 동안 말이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 자신들의 착취자, 사장, 기업주, 지주, 공장주의 삶을 더 낮고, 달콤하고, 부유하고, 화환롭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인민들은 너무 믿고 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게 너무 적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의 이익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자본가와 정부의 하수인들은 이를 이용해 덕을 본다. 따라서, 이 전쟁의 이유는 세계 시장에서의 국가 자본에 대한 갈등이다. 러시아의 자본은 러시아에서 독일 자본에 맞서 싸우고, 발칸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자본에 맞서 싸운다. 영국과 프랑스의 자본은 아프리카, 아시아와 소국들의 시장에서 독일의 자본과 싸운다. 자본과 자본은 맞부딪히고, 자본은 자본에 맞서 싸운다, 각 자본들은 상대를 쫓아 내려 한다.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품 생산에서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상품 판매에서는 소비자에게서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각 욕망은 스스로의 주인이다. 자본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국가들도 갈등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격렬해질수록 갈등은 생긴다.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전쟁이 전쟁들을 다 끝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자위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국가의 권력을 손에 쥔 자본주의적 재산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전쟁은 지속될 것이다. 이 전쟁들도 현재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목표를 가질 것이다, 즉, 기업주들과 사업가들에게 더 큰 이득을 쥐어 주는 것 말이다. 이러한 이유가 피를 흘릴 가치가 있는가?, 이만 이유를 위해 다른 나라의 같은 노동자들을 죽이고, 도시를 파괴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황폐화시키는 노동자들은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인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착취자를, 폭군 같은 주인들을 전쟁 기간에 사랑하게 되어서 그들의 이윤과 이득을 지키기 위해 흔쾌히 죽는 것인가?

전쟁의 진정한 원인과, 목적이 이해되었다더라도, 또 다른 질문이 떠오른다. 무엇이 일어나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학살이 끝나는가? 인민들이 어떻게 하면 미래의 자본가들 사이의 충돌과 분쟁, 새로운 전쟁들을 피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이 하나를 인지해야 한다, 자본주의가 계속 존재하는 이상, 토지, 공장, 시설 등등에 대한 사적 소유가 존재하는 이상, 지상에서 시민들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즉, 국가의 권력을 쥔 자본가들과 권력 없는 노동자들로 나뉘진다면, 자본가들이 세계 시장을 두고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서로 싸워 댈다면, 전쟁은 필연적이다. 전쟁은 자본가들의 힘이 박살이 났을 때만 끝날 것이다, 주인인 착취자들이 더 이상 인민들을 해하거나 전쟁으로 밀어 넣지 못한다면 끝날 것이다. 전쟁은 부정하고 불공평한 자본주의적 사회구조로 인해 발생한다.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사회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전쟁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모든 공장들과 시설과 산업체에서 자본가 주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지주들에서는 토지를, 사적 소유자들로부터는 땅산들을, 자본가들로부터 은행들을 가져와야 하며 이 모든 부들은 공동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회주의 세계가 인민

들, 노동자들에게 쟁취되어야 한다. 인민들이 스스로 모든 국부를 통제하게 된다면, 국가 경제와 예산을 통제하게 된다면, 모든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살피게 된다면, 고국과 모든 인민의 형제의 번영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분투한다면, 그렇다면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웃 인민들이 서로를 파괴하려 들지 않을 것이고, “팽창 정책”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로운 노동자들의 평화로운 나라들은 반드시 공통의 언어를 찾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수백만의 인민들을 파괴하여 전쟁 이후 지갑을 채우는 자본가들의 동맹, 즉 전쟁의 주범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맞이하는 주된 과제이다.

하지만, 질문 하나가 남았다, 그리고 하나 더 남았다, 직접적이고 시급한 과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현재의 이 동족상잔의 전쟁을 멈출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나?, 이에 대한 답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에게도 통하는 하나이자 같은 답이다. 이 답은 정부가 형제가 형제를 치게 만들었더라도, 한 나라의 노동자를 다른 나라의 노동자에게 맞서게 만들었더라도, 적은 아직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하나인 적이다, 러시아, 독일, 영국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노동자들의 이익은 하나이고 같다!.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적인들을 처벌하는 것이다. 차르들과 카이저들, 그리고 외교관들과 장관들, 모든 자본의 충직한 하수인들이 아니라면, 그 누가 이 피비린내 나는 재앙에 책임이 있다는 말인가? 그들이 그들 자신의 행위들에 대해 답하게 하자. 이 쓸모없는 정부, 부자들의 후원자를 치워버리자, 차르들, 왕들, 황제들, 카이저들을 그들의 장관들, 경찰들 부패한 공무원들과 함께 치워버리자! 국가의 권력은 인민에게 속해야 한다! 평화를 원하는 자, 이 범죄적인 전쟁에 지친 자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인민의 적에 대항하여 싸우는 인민들에 합류하라. 크레스토브니코브(러시아의 부르주아 정치인)들, 구치코프(러시아 우파 정치인)들, 모르조프(러시아의 자본가)들, 푸리쉬케비체(러시아의 우파 정치인)들과 그들의 “명예로운” 협회의 막대한 이윤을 위해 죽는 거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해 말하라! “나는 내 생명을 내 인민들을 위해, 노동계급의 권리를 위해, 노동자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내줄 것이다!... 만약 러시아의 노동자들, 독일의 노동자들, 그리고 모든 교전국의 노동자들이 이를 말한다면, 더 이상 이 학살극을 지속시킬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고, 평화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오직 필요한 것은 전선의 병사들 각각이, 작업장의 노동자들 각각이 “내 적은 내 나라에서의 나처럼 권리가 없고, 자본에 의해 억압받으며, 매일 일용할 빵을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내 적은 내 나라안에 있다, 그리고 이 적은 전 세계의 노동자들의 것과 같다. 이 적은 자본주의다, 이 적은 탐욕스럽고 부패한 계급의 정부이다. 이 적은 노동자들이 고통받는 권리의 부재이다. 노동자 동지여, 적군의 사병이여, 나는 이제 너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그 손을 주게, 동지여! 우리 둘 다 기만과 폭력의 희생자들이라니. 우리의 주되고 공통된 적은 우리 등 뒤에 있다네. 어서 소총의 총구를 진짜, 공통된 적들에게 돌리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용감한 사령관들과, 육군 원수들과 장군들은 도망칠 것이다... 어서 서로 각자, 자신의 나라에 있는 우리의 압제자들을 향해 전쟁을 벌이자, 어서 우리의 조국들에서 진정한 압제자들을 쫓아내 버리자, 우리의 조국들에서 진정한 인민의 적들을 쫓아내 버리자, 차르들, 왕들, 황제들 말이다!. 그리고 우리 손에 권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패배한 자본가들 머리 위에서 우리들만의 평화를 맺을 것이다... 이것이 민족들 간의 안정적인 평화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모든 나라의 노동자들의 사회주의적 형제애에 기반한 공정하고 더 나은 단어로 교체하기 위해 싸우고 싶어하는 자들이 나아갈 방향이다. 이것이 바로 길이라네, 동지여! 이것이 그대가 러시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불가리아와 다른 국가들의 조직화되고, 의식적인 노동자-사회주의자들에게 불리는 것이고, 노동자들의 목적에 대해 진실되게 남았고, 위대한 노동자들의 간청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잊지 않은 사회주의자들에게 불리는 것이라네. 혁명적 노동자 단체의 붉은 깃발 주변으로 모이자! 과업을 향해!, 동지들, 과업을 향해! 자본의 영예에는 이미 충분한 희생자들이 있다네. 우리의 공통된 적은 우리 뒤에 있다! 전쟁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치워버리자! 자본가들과 차르들을 치워버리자! 우리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자. 안정적인 평화를 위해! 다가오고 있으며,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사회 혁명이여 영원하리! 민족들의 사회주의적 형제애여 영원하리!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위원회 출판

스위스, 1916